

2024학년도 익산가온초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교육 자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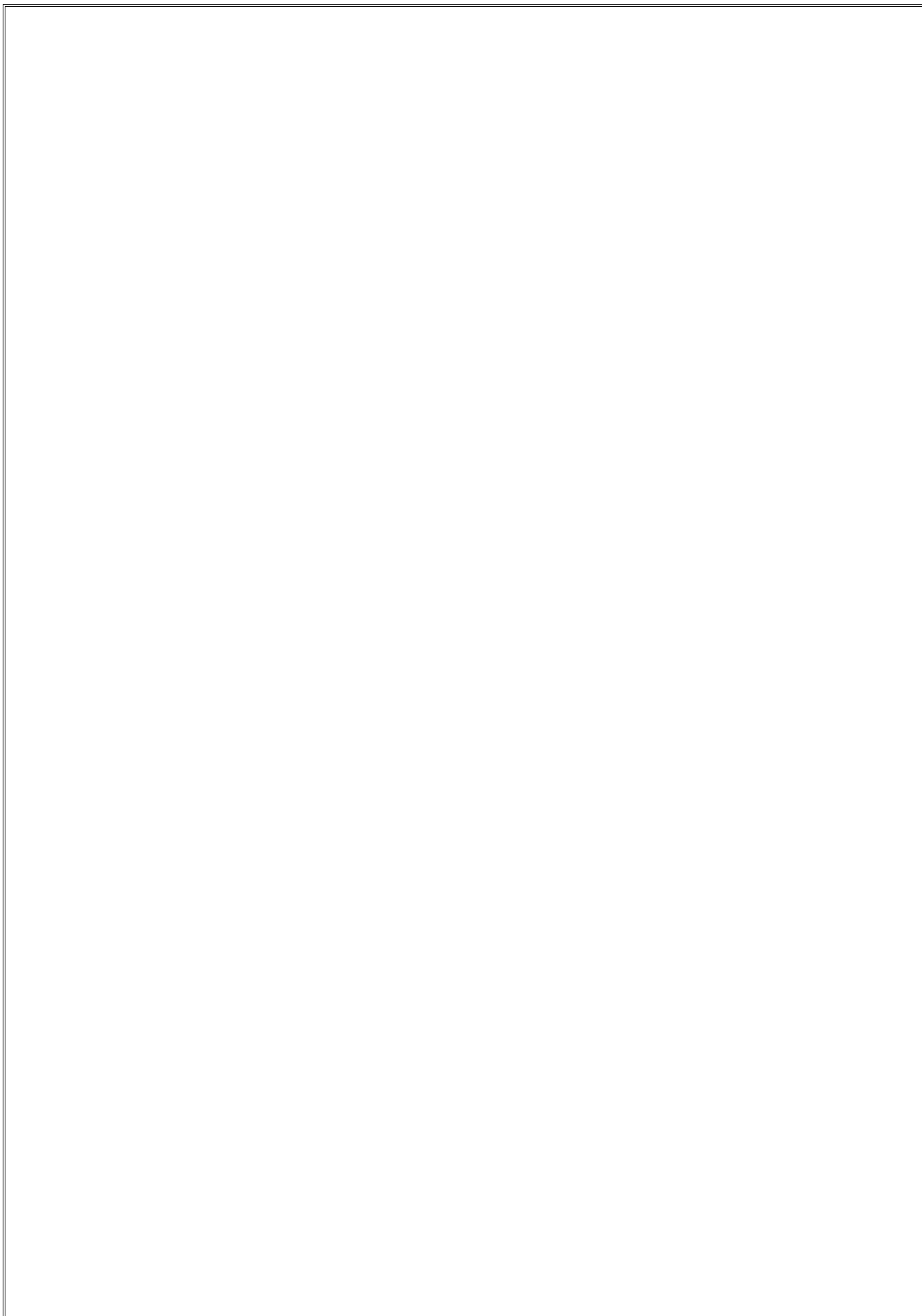
배움과 나눔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일시 : 2024년 3월 20일 (수)

익 산 가 온 초 등 학 교

<http://isgaon.es.kr>

- 교무실 (063) 840 - 8205
- 행정실 (063) 840 - 8204
- F A X 교무실(063) 841 - 8260, 행정실(063) 841-8210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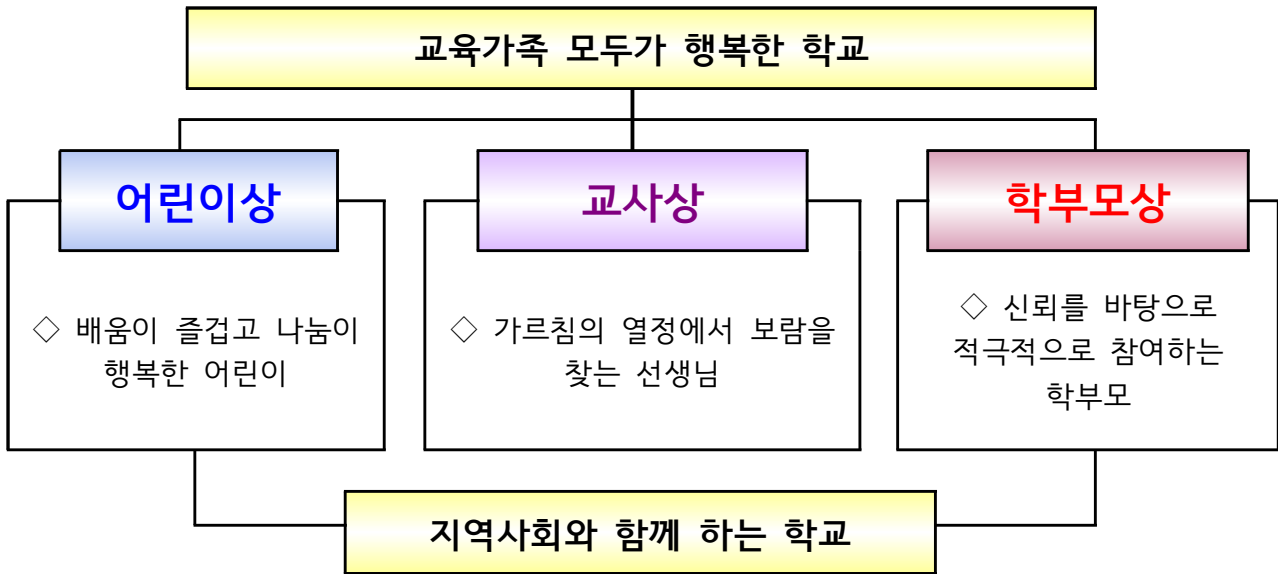
1.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2. 학생평가계획
3. 방과후학교 운영
4. 청렴(반부패)교육
5. 불법찬조금 금지
6. 공무원 행동강령
7. 교권보호교육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9. 아동학대 예방교육
10.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11. 학부모 인권교육
12. 성폭력예방교육
13.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이해
14. 정보통신윤리교육
15. 공교육 정상화 및 선행학습 금지
16. 양성평등교육
17. 마약류·흡연·음주·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1. 학교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1

학교 공동체의 철학



2

학교 교육목표

● 자주적인 어린이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어린이

● 창의적인 어린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 도전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 교양 있는 어린이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고운 심성을 가꾸는 어린이

● 더불어 사는 어린이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어린이

비전

배움과 나눔으로 더불어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

교육목표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어린이

자 주 인

- 꿈과 희망을 가꾸는 진로교육
-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수업
- 건전한 학생문화 형성을 위한 자치활동

새로운 가치를 찾아
도전하는 창의적인
어린이

창 의 인

-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 창의성 신장을 위한 독서교육
- 배움과 삶이 하나 되는 참학력 신장

다양한 문화를 즐기며
고운 심성을 가꾸는
어린이

문 화 인

- 끼를 키워주는 동아리활동
- 감성을 키워주는 체험활동
- 1인1스포츠활동, 1인1예술활동 참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어린이

나눔인

- 인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정착
-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인성교육
- 다꿈·장애이해교육을 통한 배려와 나눔 실천

구현방법

교과활동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기본교육 충실
-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신장을 위한 과정중심성장평가 실시
- 학생이 배움의 중심이 되는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 운영

창의적 체험활동

- 자율활동 (적응/자치활동, 창의주제활동)
- 동아리활동 (예술·체육, 학술문화, 실습노작활동)
- 봉사활동 (교내봉사, 환경보호)
- 진로활동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지원활동

-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 교육활동지원 중심의 학교운영과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축
- 믿음과 신뢰의 안전한 학교 교육환경 조성

역점 교육 활동

➤ 꿈을 찾아 키우는 진로교육

- 과제1. 꿈자람 진로 교육과정 편성·운영
- 과제2. 맞춤형 진로체험 활성화
- 과제3. 진로 상담 활동의 활성화

추구하는 어린이상

나를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는 어린이



2. 학생평가계획

1 목적

- 가. 배움과 삶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참학력 신장과 삶의 역량 배양
- 나. 배움과 성장, 과정중심의 평가로 교실수업 및 평가 운영 역량 강화
- 다. 교육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로 학교 교육 만족도 제고
- 라.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 지원 강화
- 마. 학생, 학부모, 교사 간 소통 기회 확대로 즐거운 학교 실현

2 방침

- 가. 성취기준에 기반한 평가계획에 따라 교수·학습 과정과 평가를 연계하고 지속적으로 학습 성과를 파악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 다. 교육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기본학습을 정착하도록 한다.
- 라. 학습 결과의 도달점 확인 평가가 아닌 목표에 도달하기까지의 사고 과정 중심의 평가가 중요시되도록 한다.
- 마. 교과와 특성을 고려하여 학년별 영역별 성취수준을 설정하고 다양한 평가 도구와 방법을 활용한다.
- 바. 평가의 평가 과제 및 관점은 학년별 형성평가 기준안에 의해 평가한다.
- 사. 평가는 학생의 이해를 위한 자료와 교수·학습지도의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3 운영 방법

- 가. 운영 기간: 2024. 3. 2 - 2025. 2. 28.
- 나. 운영 대상: 전 학년(1~6학년)
- 다. 운영 분야: 교과학습발달, 창의적 체험활동
- 라. 평가 종류: 형성평가(기존 수행평가), 총괄평가(신설)

마. 운영 내용

- 1) 학생의 성취도를 확인하고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두며, 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과 추수 지도
- 2) 교과별 성취기준·평가기준에 따른 평가 운영하여 성취기준에 기반한 학습 수행과정과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 확인
- 3)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과학습발달상황을 기록하여 평가 신뢰도 확보
- 4) 평가시기 : 형성평가는 평가 계획에 따라 연중 수시로 실시, 총괄평가는 학기말 실시(7, 12월)
- 5) 정기적인 학업성취도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하여 학생별, 교과별 성취수준과 이해도에 맞는 맞춤 학습 제공
- 6) 평가에 대한 학생·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학기초 학년별 학생평가 계획 안내장 발송
 - 평가의 종류, 내용, 시기, 방법 등을 학급별, 학년별로 사전 예고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 7) 학생의 성장과 학습 능력을 알 수 있는 성적 통지
평가결과는 연 2회(학기 말 7월, 1월) 통지 및 학부모 상담주간 실시 등으로 학생의 정확한 학습 성취 안내

4

기대 효과

- 가. 평가 자체가 배움의 과정에 포함되는 성장 중심의 평가관 정립
- 나. 평가 방법의 다양화 및 교사의 평가 자율권 존중을 통해 학생의 종합적인 사고능력 배양
- 다. 체계적인 가정 통지의 혁신을 통해 자기 주도적 학습 관리 태도 신장 및 학부모의 학생발달상황 이해도 신장
- 라. AI 등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학습을 지원하여 학생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에 참여
- 마. 학급 교육 과정 중심 자율 평가 체제, 서술·논술형 평가 확대 등 평가 혁신으로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경쟁력을 강화



3. 방과후학교 운영

1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가. 운영 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5년 2월 28까지 운영(변동 가능)

구 분	운 영 기 간	비 고
1기	2024 3월 4일 ~ 2024년 5월 31일	
2기	2024년 6월 1일 ~ 2024년 8월 31일	여름방학 포함(7.31 ~ 8.22 / 23일간)
3기	2024년 9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4기	2024년 12월 1일 ~ 2025년 2월 28일	겨울방학 포함(25.1.8 ~ 25.2.28 / 52일간)

나. 세부 실천 내용(변동 가능)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운영기간	1학기	2024.03.04 ~2024.08.31.	여름 방학	7월 31일 ~8월 22일	2학기	2024.09.01. ~2025.02.28.	겨울방학	2025년 1월 8일~ 2월 28일
				방과후학교 여름 방학	7월 29일~8월 2일			방과후학교 겨울 방학	2월 27일~2월 28일
				여름방학 특강	8월 5일~8월30일			겨울방학 특강	1월 8일~ 2월 26일
	운영시간	주중	13시 20분~16시 45분	토요일	미운영	휴일	미운영	방학중	9시~ 12시30분
수요 만족도조사 실시 계획		1학기		6월 17일~6월 21일			2학기	11월 11일~11월 15일	

* 방학식 및 종업식 미운영 (2024.07.30. / 2025.01.07.)

2 개설 프로그램 및 운영

가. 2024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수요조사 결과

- 학교 직영운영 희망(76.8%), 위탁운영 희망(23.2%) → **직영 운영**으로 결정

나. 개설 프로그램

순	프로그램	운영 요일 (예정)	1회 수업 시간	순	프로그램	운영 요일 (예정)	1회 수업 시간
1	스포츠교실	월, 화, 목	40분	10	창의수학	수, 금	60분
2	영어	월, 화, 목	40분	11	만화그리기	수, 금	60분
3	중국어	월, 화, 목	40분	12	로봇과학	수, 금	60분
4	미술	월, 화, 목	40분	13	클레이	수, 금	60분
5	바둑	월, 화, 목	40분	14	바이올린	수, 금	60분
6	한자	월, 화, 목	40분	15	주산암산	수, 금	60분
7	독서논술	월, 화, 목	40분	16	예쁜글씨 캘리그래피	수, 금	60분
8	컴퓨터A	월, 화, 목	40분	17	플룙	수, 금	40분, 60분
9	컴퓨터B	수, 금	40분, 60분	18			

* 강사 및 학생 수강, 학교 실정에 따라 요일이나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4. 청렴(반부패)교육

I.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주요골자

-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 한다는 것!

1

청탁금지법 추진경과

- 국회 본회의 의결: 2015.3.3.
- 법안 공포: 2015.3.27.
- 청탁금지법 시행: 2016.9.28.

2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국민신뢰 확보
- 선의의 공직자, 공적 업무 종사자 보호

3

법률 적용대상

- 적용 대상기관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 적용 대상자
 - (공직자 등)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공직자 등의 배우자
- 일반국민 :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

-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자)

4 부정청탁 행위유형(15가지)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5 부정청탁의 금지

- 이해당사자(A)가 제3자(B)를 통하여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 과태료(1천만원 이하)
 - ☞ 제3자(B) : 과태료(일반인은 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
 -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 이해당사자(A)가 자신의 일에 대해 직접 공직자(C)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 이해당사자(A) : 처벌대상에서 제외
 - ☞ 공직자(C) :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6

금품 등 수수 금지

● 공직자 등과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 금지 기준

- ☞ 공직자 등과 배우자가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 100만원 이하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할 경우 과태료 부과(수수금액의 2~5배)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 원활한 직무수행.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산물 가공품 10만원), 경조사 5만원(화환, 조화 10만원))
-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 청렴의무 위반등 관련사항 신고

◇ 부패신고 문의처

- 익산가온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 교감 ☎ 063-840-8202



5. 불법찬조금 금지

“불법찬조금 · 촌지 NO” 학교에는 감사의 마음만 가져 오세요

- 신학기·스승의 날 등을 전후하여 학부모들이 촌지(금품)를 제공하고, 과거 일부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촌지를 수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불법찬조금 및 촌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부모회, 운동부 후원회, 청소년단체·방과후 교육활동·음악부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임의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 수수는 왜 근절되어야 할까요?
 -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가 경쟁력을 가집니다.
 - 학교현장이 깨끗해야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랍니다.
 - 감사의 표시, 선한 동기로 선물을 하더라도 교사에게는 비윤리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불공평한 학생지도 유발)
 - 촌지는 학생 사이의 위화감을 만들고, 교사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불법찬조금 및 촌지(금품)는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요?
 - 불법찬조금·촌지를 없애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시간도 걸리지 않습니다.
 - 다만, 없애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불법찬조금(촌지) 등 부패 관련사항 신고

◇ 부패신고 문의처

- 익산가온초등학교 교무실 청탁방지담당관, 행동강령책임관
교감 ☎ 063-840-8202

6.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학생중심 미래교육
다독범한 전북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2024. 1. 18.
시행
(타법개정)

적용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파견된 공무원

1 공정한 직무수행

☑ 상급자의 부당지시에 대한 처리

상급자에게 사유를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행동강령 책임관과 상담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자신 또는 다른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청탁 금지



3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강의, 강연, 기고 등)를 할 때에는 외부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

☑ 경조사 통지 제한

(경조사 통지 허용)친족,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했던 기관의 소속직원, 신문·방송 또는 내부통신망 등,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



2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 부정 알선·청탁 등의 금지

다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는 행위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인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금지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요구 등 부당 행위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하는 행위 금지



4 행동강령책임관 지정

☑ 행동강령책임관

·도교육청: 감사관
·직속기관: 총무과장(없는 경우 총무부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공립학교: 교감(원감), 없는 경우 학교장(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2024. 1. 18.
시행
(타법개정)

적용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파견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

1 신고 및 제출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공직자는 수행중인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 직무관련자는 해당 공직자에 대해 기피 신청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공직자는 신고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특수관계사업자 등)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와 사적 거래를 한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인 퇴직 후 2년 이내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하는 경우 신고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고위공직자는 3년 이내 민간부문 활동내역을 임용·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출



2 제한 및 금지 행위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공개채용을 거치지 않고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자 등의 가족 채용 금지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고위공직자, 계약업무담당자 등의 가족, 그들이 대표자인 법인·단체 등과 수의계약 체결 금지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금지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 등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공직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재물·재산상 이익 또는 제3자의 취득행위 금지



3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 이해충돌방지담당관

·도교육청: 감사관
·직속기관: 총무과장(없는 경우 총무부장)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공립학교: 교감(원감), 없는 경우 학교장(원장)이 교사 중에서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JEONBUK STATE OFFICE OF EDUCATION



7. 교권보호교육

교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과 학생들은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 근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전라북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규칙」
- 「전라북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2020.2.14.)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지원

2 교육활동의 침해란?

소속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 폭행 및 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 ☐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 2조 1항에 의한 성범죄(교원지위법 제1항 제2호)
-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유통(교원지위법 제1항 제3호), 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
-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등.
- ☐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독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 ☐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처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 교사의 사진을 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따른 조치

- 「교원지위법」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침해학생 및 보호자 등 조치
- (침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처분(「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교원지위법」 제15조제2항)

※2024.3.28.자로 학교교권보호 위원회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

4 학부모의 교육활동 참여 방법

- ☐ 학교운영위원회 활용, 학부모회 참여, 학급소통방, 각종 연수 및 공개수업 참여 등.
- ☐ 학부모의 방문 절차

Ⅰ 학교 방문 시 사전 예약하기 Ⅰ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안전과 교권보호를 위해 '학부모 상담주간 이외의 학교 방문' 시 학교 출입자의 신분확인 절차가 의무화되었습니다.(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부모님의 학교 방문도 **사전 예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학부모님 협조 사항

- ☐ 교육활동 관련 상담은 가급적 **근무시간 내**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 ☐ 수업 및 평가 내용 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부당한 요구나 간섭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을 위하여 전화를 할 경우, 자녀의 시간표와 학사 일정을 참조하여 수업 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근무 시간(08:30~16:30) 외 상담 신청 및 연락 자제 / 학생 관련 급한 연락은 교무실로~!!**
- ☐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두 개념은 상충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언제든지 학부모님과 상담하여 소통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께서도 교사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함께 꽃피는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6

교권 보호를 위한 녹음기 설치 및 하이쿨, 하이톡 사용

- ☐ 도입 배경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교원의 교육 활동 보호)에 관한 지원
 - 매년 휴대폰으로 인한 교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 원격 수업의 장기화로 인한 수업 관련 문의 폭증에 따른 교직원 피로도 증가
 - 학부모의 과도한 연락 및 폭언, 협박으로부터 교권의 보호 필요
 - 교직원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 삶의 질(QOL, Quality of Life) 보장 필요성 대두
- ☐ 도입 효과
 - 학부모의 과도한 연락 및 폭언, 협박 등으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불안 해결
 - 근무 시간 외 전화 민원으로 인한 교원의 피로도 해결
 - 업무 시간(수업 중, 회의 중) 전화 연결 차단 기능으로 수업권 보장
 - 안내 멘트 설정으로 학부모님 상담 요구에 효과적 대응
- ☐ 적용 방법
 - 녹음기는 교실 및 교무실 등 전화기에 연결하여 사용~!! 안내 멘트 및 녹음 기능 적용
 - 하이클래스 하이쿨 및 하이톡 사용으로 교원의 개인 휴대폰 번호 노출 방지(사생활 보호)

7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함께 해요

순	구분	재생시간	내용 구성	영상보기
1	학생용	5분 18초	【사례1】 교사의 지시에 불응 및 폭언,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에게 욕설 【사례2】 수업 방해,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며 명예훼손 https://youtu.be/OeZ-pDuUvD4	
2	학부모용	7분 34초	【사례1】 학부모가 교사의 지도에 반감을 갖고 폭언,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함 【사례2】 학부모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을 함 https://youtu.be/pkLMkzCyZM	
3	공익광고	40초	수업방해 안돼요! 불쾌한 말은 안돼요! 서로 몰래 촬영유포 안돼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교육활동 보호, 함께해요! https://youtu.be/5Yq9DSa8FhQ	
4	뮤직비디오	2분 10초	선생님과 학생들은 서로 같은 맘 수업방해, 교육활동 침해 안돼요! 요들송 뮤직비디오를 보고 교육활동 보호, 우리 모두 함께해요! https://youtu.be/e8HhkTYBnzY	



⇒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방안

1 학교폭력 예방 수칙

- 가. 자녀의 사이버 상 프로필과 심경 변화 메시지를 주의 깊게 보고 대화를 나눕니다.
- 나. 자녀에 대한 양육 태도와 부모의 역할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해봅니다.
- 다. 아동기·청소년기에는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한 점을 상기하며 원만한 관계를 맺도록 북돋워 줍니다.

2 학교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징후

- 가.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있다.
- 나.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
- 다. 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때로는 훔친다.
- 라. 집에 돌아오면 배가 고프다고 폭식을 한다.
- 마. 쾌활하던 자녀가 말이 없어지고 우울한 표정을 띤다.
- 바. 짜증을 자주 내고, 부모에게 공격적으로 대항한다.
- 사. 일기장, 메모 등에 폭력적인 그림이나 낙서가 있다.
- 아.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잠꼬대로 앓는 소리를 한다.
- 자. 자신이 아끼는 물건을 자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한다.
- 차. 사주지 않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에게 빌렸거나 받았다고 한다.
- 카. 부모와 대화 중 눈길을 피하며 간섭하는 것을 싫어한다.

3 이렇게 대처하세요 - 피해 학생이라면?

- 가. 자녀가 어려움을 스스로 털어놓았을 때는 일단 수용하며 편견 없이 들어주고,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피해의 사실, 아픔, 상처에 깊이 공감해야 합니다.
- 다. 지나치게 흥분하여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라.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도 자녀의 의견을 수렴하며 학교 선생님과 상담 후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4 이렇게 대처하세요 - 가해 학생이라면?

- 가. 자녀가 폭력을 행사한 주변 상황과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합니다.
- 나. 자녀에게 피해 학생의 피해 상황과 고통을 객관적으로 알려주고, 피해 학생과 처지를 바꾸어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 다. 분노를 조절하여, 화가 났을 때는 다른 건강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범죄이고 정당한 폭력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 라. 폭력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한 후 사안별 지도 방법(선도나 처벌)에 따라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 후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도받게 합니다.



9. 아동학대 예방교육

1 아동(18세 미만)학대란?

구 분	정 의	비고(관련법률)
아동학대	아동(18세 미만)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학대 범죄	상해, 폭행, 특수폭행, 폭행치사, 유기, 학대, 아동학사,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추행,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주거·신체 수색)의 죄,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학교폭력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 학부모나 교사에 의한 체벌, 폭언, 욕설, 방임 등은 아동학대 행위인 동시에 학교폭력입니다.

2 아동학대 발견(인지)시 조치 요령

Step1(인지 즉시 신고)	Step2(보호조치 요구)	Step3(사후 조치)
<p>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 (112)에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의 체벌, 폭언, 욕설 학부모의 체벌, 방임 일반인에 의한 폭행 	<p>학교에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전담기구(책임교사)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구 교사의 체벌인 경우 수업 배제 요구 	<p>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 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교원의 경우: 아동학대로 판정 시 해임처분, 형사처벌 ※학부모의 경우: 형사처벌

3 교직원 및 학교 종사자는 모두 신고 의무자

- **신고 의무 대상:**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 교사의 체벌뿐만 아니라 상담 과정에서 인지한 학부모의 학대 행위, 유기, 방임, 학습권 침해도 신고 의무 대상
- **신고 의무자(교사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및 강사, 전문상담교사 및 산학겸임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 **신고 의무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학교폭력 은폐에 따른 중징계 조치

4

학부모가 알아야 할 아동학대

- 아동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모두 아동학대입니다.
-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방치하는 것(방임)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심각한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 장애, 신체적 손상에 대해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
- 아동의 학습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아동학대입니다.
예) 학생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강요된 행위는 아동학대입니다.
- 아동의 복지나 정상적인 발달(건강)을 저해하는 것은 아동학대입니다.
예) 의식주 등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에 필요한 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등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내

- 아동학대치사(제4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학대중상해(5조): 3년 이상의 징역
- 상습범(제6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 병과조치(제8조):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등 병과
- 친권의 상실(제9조): 아동학대중상해, 상습범의 경우

6

훈육이란

- 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평정심 유지 상태)여야 함

- 합리적 훈육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아동의 행동에 대한 화난 상태나 복수를 하기 위한 상태에서의 체벌
 - 아동이 한 행동의 대가로 아동을 때리는 것
(예: 아동이 다른 형제나 친구를 때렸을 때, “너도 맞아 보고 아파 봐야 다시는 때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복수의 의도로 체벌을 하는 것)
- 부적절한 정서 반응의 예
 - 아동의 고의성 없는 실수에 대해 모욕, 경멸, 비난, 비아냥 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 잘못된 행동(≠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
-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

- 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 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 상황은 비합리적임
(‘맞을래’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

- 훈육 시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며, 맨손이라 할지라도 상흔(멍, 손자국, 긁힘 등)이 발생하거나 머리, 얼굴 등의 부위를 때려서는 안 됨



⇒ 10.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

1

청소년 자살에 대한 이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1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등학생 25.2%는 최근 1년 동안 우울감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9년 연속 '자살'로 조사됐습니다. 많은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생각이 시작되었고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어른들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조금만 예민하게 살펴보면 자녀의 극단적인 선택은 막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죽고 싶다는 절망적인 생각을 할 때 보이는 언어, 행동, 정서표현의 신호들이 무엇인지,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알고, 가정에서 이러한 적신호를 통해 자살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 죽음에 대한 개념이 확립되는 시기는 만 10세 경입니다.

- 만 10세 이전의 자녀가 죽고 싶다는 말을 할 때는 어른들이 생각하는 죽음의 개념이 아니라, 너무 힘들다는 호소일 수 있습니다.
- 죽고 싶다는 자녀의 호소를 무시하거나 야단치지 않습니다.

나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보이는 징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식사와 수면 습관이 변합니다. 식사를 잘 하지 못하거나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 2) 짜증이 늘어나고 침울하고 우울하게 보입니다.
- 3) 두통, 복통, 소화불량 등 신체 증상을 호소합니다.
- 4) 일기장이나 SNS에 죽고 싶다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 5) 지각, 등교 거부 등 평상시 해오던 일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 6)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고 무기력하게 누워만 있을 수 있습니다.
- 7) 반항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 8) 스스로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위험한 행동을 보입니다.
- 9) 사후 세계를 동경하거나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 10) 자기 주변을 정리하고 평소 아끼던 소유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 11) 방에 혼자 있으려고 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합니다.
- 12) 이상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갑자기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다 자녀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부모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 반드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합니다.

"너 요즘 많이 침울해 보이는데, 혹시...죽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
 "너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2) 아이가 죽고 싶다고 이야기 한다면 매우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충분히 들어주시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 언제부터,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물어보세요.
-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했는지를, 죽으려는 행동을 시도한 적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3) 문제의 심각성을 부정하지 않고 아이의 입장에서 충분히 공감해 주세요.

- ‘죽겠다’는 자녀의 말이 단순한 투정으로 느껴지더라도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는 삶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입장에 서서 진지하게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4) 자녀의 긍정적인 측면을 지지해 줍니다.

“너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어, 도와줄게”

“너 생각보다 엄마는 너에게 관심을 갖고 있고 친구들도 있잖아.”

5)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방안을 함께 모색하세요.

“엄마(아빠)가 널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런 일이 있어서 네가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었던 거구나.

그 일을 엄마(아빠)가 도와 줄 테니 함께 해결해보자.”

“내가 보기엔 네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은데, 함께 병원에 가보지 않을래?”

6) 분위기 쇄신을 위해 자녀의 요구조건을 일부 들어주기도 하고 가족 간의 외식이나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은 처방입니다.

7) 신속한 조치를 취합니다.

-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2 자살 충동자 구조 요청 전화 및 우울증 상담

- ♥ 한국 생명의 전화 (1588-9191 : www.lifeline.or.kr)
- ♥ 사랑의 전화 상담센터 (1566-2525 : www.counsel24.com)
- ♥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 www.cyber1388.kr:447)
-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마음이음 1080 : www.suicide.or.kr)



11. 학부모 인권교육

<< 자녀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부모님의 실천 >>

비난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욕하는 걸 배우고,
조롱 속에서 자란 어린이는 부끄러움을 배우고,
책망 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죄의식을 배운다.

용기를 얻으며 자란 어린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공정함 속에 자란 어린이는 정의감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어린이는 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1. 자녀의 사생활 존중하기

- 자녀 일기장 몰래보지 않기
- 자녀 휴대전화 몰래보지 않기
- 자녀 책상, 가방 뒤지지 않기
- 자녀 우편물, 전자우편 몰래보지 않기

2. 안돼! 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기

- 긍정적이고 권유형의 표현으로 대화하기,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겠니?"

3. 자녀의 인격 존중하기

- 다정하게 이름 불러주기, '야, 임마, 이 새끼' 등 감정적 표현 사용하지 않기
- 자녀의 말 끊지 않기

4. 자녀의 의견과 선택의 권리 존중하기

- 다른 자녀와 비교하지 않기

<< 자녀존중 십계명 >>

1. 자녀도 독립된 인격체라는 인식을 부모가 먼저 가져야 한다.
2. 가정 안에서의 의사결정에서 자녀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고, 가족회의 등을 통해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
3. 자녀의 진로에 대해 부모는 단지 조언의 역할에 만족해야 한다.
4. 형제자매간에 성별, 나이, 학업 성적 등의 이유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5. 자녀를 이웃의 자녀들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
6.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는 일방적인 체벌보다는 왜 잘못인지를 깨닫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교육적 체벌도 가급적 삼가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정이 섞여 있지 않은지 부모 자신이 먼저 성찰해야 한다. 자녀를 때리지 않고도 기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욕설을 해서는 안 된다.
8. 자녀를 흥분한 상태에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9. 자녀들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할 줄 아는 생각과 생활태도를 지니도록 늘 가르쳐야 한다.
10.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깊은 관심을 지니되, 자녀의 사생활도 보호해주어야 한다.

<< 우리가족의 인권 지수는? >>

♣ 어린이가 체크(✓) 해 봅시다.

내 용 (학생용)	체 크		비 고
	○	×	
1. 화가 나면 말보다는 행동으로 감정 표현을 한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지킴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하고 싶지 않아도 해야 할 때가 더 많다.			
3. 가족들 사이에도 비밀은 지켜지지 않는다.			
4. 부모님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지 않는다.			
5. 형제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이 귀찮다.			
6. 잘못을 했을 때는 자주 매를 맞는다.			
7. 부모님은 나를 자랑스럽게 생각 하신다			
8. 형제들과 비교를 당하거나 차별을 받는다.			
9.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기도 한다.			
10.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든다.			

♣ 부모님께서 체크(✓) 해 봅시다.

내 용(학부모용)	체 크		비 고
	○	×	
1. 가족과 함께 하는 일들이 많다.			※ ○가 몇 개나 되나요? ▶ 3개 이하 인권 오염이 ▶ 4개-7개 인권 노력이 ▶ 8개 이상 서로 존중하며 더욱 노력해요
2.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는다.			
3. 아이들의 비밀은 언제나 지킨다.			
4. 부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는다.			
5. 내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어울려서 놀 수 있도록 한다.			
6. 아이들의 의사표현에 귀를 기울인다.			
7. 아이들이 문화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8. 아이들 앞에서는 부부간에 정중한 언어사용을 한다.			
9. 공부를 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10. 애들이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12. 성폭력예방교육

1 성폭력이란?

- ▷ 성폭력이란 성을 이용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성추행, 성희롱뿐 아니라 강간, 음란 전화, 성매매, 성기 노출, 관음증, 음란통신, 음란물 제작·판매, 강제 매춘, 인신매매 등도 해당되며 성폭력에 대한 행동 제약, 공포, 불안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자주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 · 성희롱 행동은?

- 가. 야한 말이나 사진, 동영상 카카오톡, 밴드로 보냄
- 나. 성장이 빠른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언급
- 다. 여학생의 치마 속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친구들에게 돌림
- 라. 장난치는 척하면서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짐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성폭력 범죄이며, 처벌 대상임을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도하여야 합니다.

3 성폭력 · 성희롱 예방을 위한 학부모 지침

- 가. 자녀들이 무엇이나 물어볼 수 있도록 나무라지 마시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줍니다.
- 나. 성(性)에 대한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다. 아이들이 평소에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도 유심히 봅니다.
- 라. 부모님께서 좋은 본보기가 되어 줍니다.
- 마. 남자 또는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 바. 어른이 되면서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변화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 사. 성(性)적인 것은 더럽거나 속되며 죄스러운 것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합니다.

4

성폭력 · 성희롱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 가.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보세요.
 -성범죄 알림e 사이트 접속(<http://sexoffender.go.kr>)하여 성범죄자 현황 파악, 등하굣길
 함께 걸어보기, 아파트나 연립주택의 지하실, 옥상, 주차장 등에 혼자 가지 않기.
- 나.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고 있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
 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주세요.
- 다. 호의를 베풀다고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아는 사람이라도 가족이 아닌 경우 단둘이
 집에 있거나 차를 타지 않도록 자주 말해주세요.
- 라. 성 지식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무엇이 성폭력인지 정확히 알게 해주세요.
- 마. 평소 자녀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무슨 일이든지 부모님께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폭력
 발생하더라도 즉시 부모님께 말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많은 대화를 해주세요.
- 바. 자녀들이 평소 무심히 하는 행동이나 말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 사. 위험 상황을 감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 아. 위급할 때 뛰어가 도움 청할 곳을 알려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함께 익혀둡니다. 성폭력
 과 관련하여 정보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기관의 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5

성폭력 피해 시 대처는 이렇게

- 가. 아이를 비난하지 말아주세요. “네 잘못이 아니야”
- 나. 가해자의 키, 인상, 몸의 생김새, 말 행동의 특성을 기억하거나 기록해둡니다.
- 다. 몸을 씻지 않고 속옷을 종이봉투에 넣어 보관하고 부모님이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 라. 법적인 문제와 해결 방안을 위해서 원스톱 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 마. 자녀가 자발적으로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면 막지 말고, 잘 듣고 공감해 줍니다.
- 바. 가해자, 피해 공간 등 피해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 자극을 피합니다.
- 사. 사건 처리 과정에서 자녀를 관련시키지 않도록 합니다.
- 아. 자녀에게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부각시키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 피해자는 물론 가족 포함 심리치료 진행
- 자. 치료와 검사, 증거 채취를 위해서 몸을 씻지 말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에 갑니다.
 (48시간 이내, 응급 피임약은 72시간 안에 사용)

6

성폭력 발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 가. 여성 긴급전화 국번 없이 『1366』: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 구조.보호, 상담
- 나. 해바라기 아동센터(아동 성폭력 전담센터) T.1899-3075
- 다. 가정폭력, 학교폭력,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ONE-STOP 지원센터**
- ◆ 인근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
- ◆ 학교폭력·성폭력 신고: 112·117 <http://www.safe182.go.kr/index.do>
- ◆ 우리 학교에서는 성(性) 고충상담 창구(보건실)를 운영합니다.



13.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

1 개인 정보 보호

■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국민들이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실천 수칙



■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

(제24조의 2)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주민번호 예외적 처리 허용 사유>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1.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1.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개인정보보호 생활수칙(교육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자료)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학생·학부모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생활 수칙!

개 개인정보는 소중한 나의 정보입니다! 동의 없는 아무에게나 알려주지 마세요!
※ 학원, 교습소 등 영리 사업자

인 스타그램 등 SNS, 메신저 이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공개하세요!
※ 2인제 인증으로 계정 보호
※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마세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정 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금전 등을 요구하는 전화, 이메일은 반드시 주의 하세요!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수

보 호자 동의 없는 회원가입 웹사이트(게임 등)에서는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세요!
※ 만 14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필수

스스로 지키는 나의 개인정보! 내가 먼저 확인하고 보호 합시다!

교육부 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업무에 바쁜 당신 개인정보는 신중하게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판 본문, 첨부파일(한글, PDF, JPG) 내 개인정보 포함 여부 반드시 확인

엑셀 기능
엑셀 [숨기기], [시트보호], [메모] 등의 다양한 기능으로 숨겨져 있는 개인정보 확인
※ 엑셀 문서 공유 시 반드시 PDF 변환

이메일 발송
수신자 이메일 주소 반드시 확인
개인정보를 포함한 파일은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발송

인쇄물·메신저
인쇄물 개인정보 포함여부 확인
기관 메신저로 개인정보 공유 지양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개인정보보호 포털 홈페이지 <https://privacy.moe.go.kr> → 자료실 → 참고자료 참조하세요.



14. 정보통신윤리교육

1 정보통신윤리교육

가. 인터넷중독이란?

-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생활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한국정보문화진흥원, 2002)

나. 인터넷 중독 예방지침

- 특별한 목적 없이 컴퓨터를 켜지 않기
- 컴퓨터 사용시간 가족들과 협의결정
- 컴퓨터 사용시간과 내용을 사용일지에 기록
- 알람시계로 사용시간 수시확인
- 인터넷으로 식사나 취침시간을 어기지 않기
- 운동이나 취미활동시간을 늘리기

2 스마트폰 중독

가. 스마트폰 중독이란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울하거나, 초조함, 답답함을 느끼며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심각할 정도로 집착한 상태

나. 스마트폰 중독 예방!!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방법

-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는 유용한 앱 활용
- 스마트폰 필요할 때에만 사용
- 친구들과 눈으로 대화
- 때와 장소에 따라 적절히 사용
- 시간제한 앱 깔고 푸시(알림) 기능 끄기
- 온라인에 글을 남길 때에는 신중하게 작성

3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

■ 사이버 (언어)폭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들이 있습니다.

최신 유형	설명
카카오톡 왕따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왕따 행위를 모바일 공간으로 옮겨와서 자행하는 것
와이파이 셔틀	스마트폰의 테더링 기능을 이용해서 피해학생의 스마트폰을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사용하는 것으로, 무선데이터 갈취를 통해 금전적 피해를 주는 것
게임 아이템 셔틀	게임을 하기 위해 필요한 아이템을 피해 학생에게 상납받는 행위

< 사이버 언어폭력 대처방안 >

1. 사이버 폭력에 대해 규칙적으로 대화를 나눈다.
2. 바른 언어습관의 사용에 대해 지도하고 모범을 보인다.
3. 사이버 폭력 피해 시 학부모님들의 직접 해결보다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한다.
4.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 (카카오톡, 카카오톡스토리 등)에 관심을 가진다.
5. 컴퓨터 및 스마트폰에 음란물과 폭력물을 필터링하는 프로그램 혹은 앱을 설치한다.
6. 자녀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 직접 해결하지 말고 어른과 상의할 것을 강조한다.
7. 스마트폰 및 인터넷 사용시간을 정하고 관리를 한다.
8. 사건 발생 전의 사이버 언어폭력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15. 선행학습금지(공교육정상화법)

1

공교육정상화법

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교사들의 정상적인 수업을 촉진하여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나. 선행학습 유발 요소를 줄여 공교육 정상화 추진

2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의 문제점

-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미리 배우는 것으로 통상적 예습의 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교육적 폐해는 심각하다 할 수 있으며, 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을 경우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결여되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 있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를 받게 됨.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학교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됨.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음.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21조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3

공교육 정상화법의 적용

- 가. 선행교육이 필요 없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 나.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다.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라.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철저
- 마. 적용의 배제

-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등학교 및 대학 등에 적용되나, 영재교육기관, 조기진급자, 적용 배제교과(군),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은 공교육정상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적용되는 교과: 국어, 수학, 통합교과
- 초등학교 3~6학년에서 적용되는 교과(군):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 영어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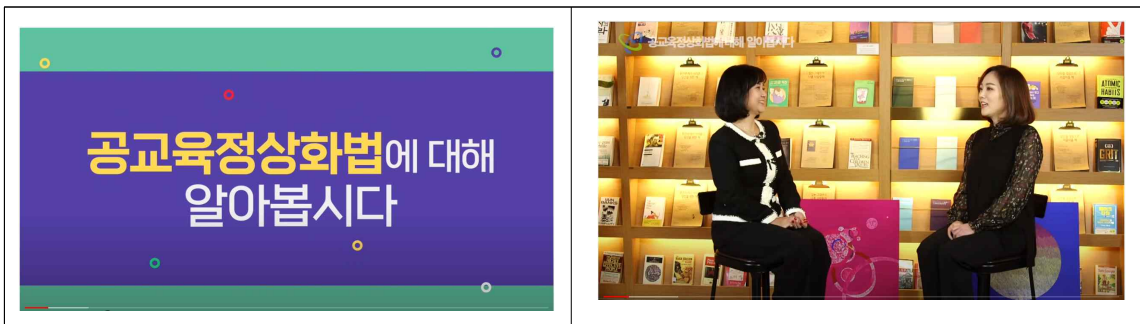
학부모의 책무

「공교육정상화법」 제6조(학부모의 책무)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른 학교 수업 및 각종 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의 정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5

관련 영상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자료마당]-[공교육정상화법 홍보 자료]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16.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존중) 교육이란?



남성과 여성의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
차별 없이 존중하는 태도
함께 존중하고 함께 실천하면 행복해집니다.

양성 중 어느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부정적인 감정이나 고정관념, 차별적인 태도를 갖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여 똑같은 참여 기회를 주고, 똑같은 권리와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남녀 각각의 타고난 성에 의한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2

자녀에게 양성평등 감각을 길러주기 위한 방법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크쇼 '간호사 이야기'
(학생, 학부모용 동영상)
[출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젠더원]

-동영상 설명-

과거 간호사가 여성의 직업이라고 여겨졌던 편견을 깨고 남성 간호사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소비자나 의료인 등이 남자 간호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여전한데요. 평등한 일터를 위한 토크쇼 '간호사 이야기'의 홍지수, 김근호 간호사와 함께 간호사로 일하며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Ypgb_O-yiGI

▶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s://genderon.kigepe.or.kr/>

① 부모가 먼저 성 역할에 대한 편견과 행동을 바로 잡는다.

: 아이는 부모의 행동과 말,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지워야 한다.

②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다.

: 아이에게 '남자니까', '여자니까',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등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여성, 남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기면 성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③ 놀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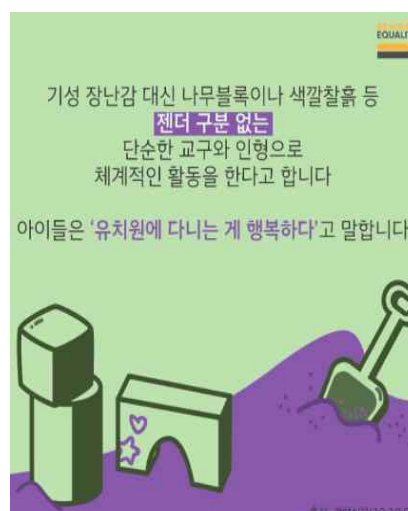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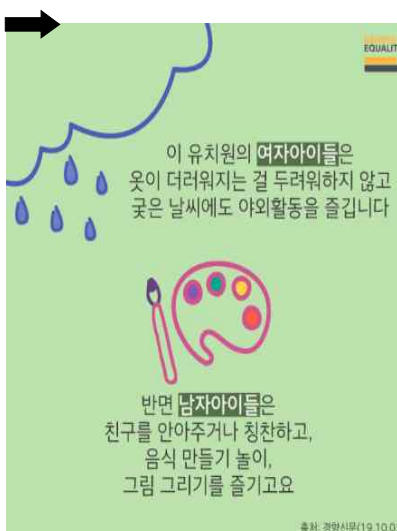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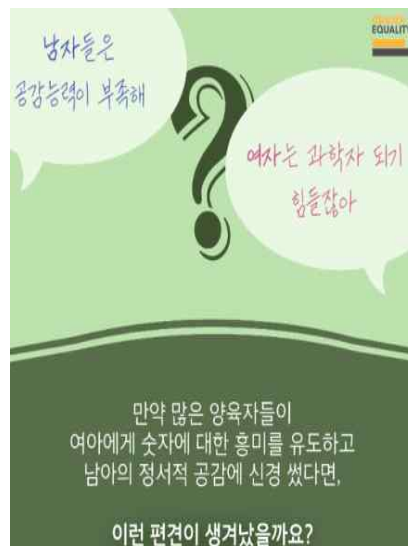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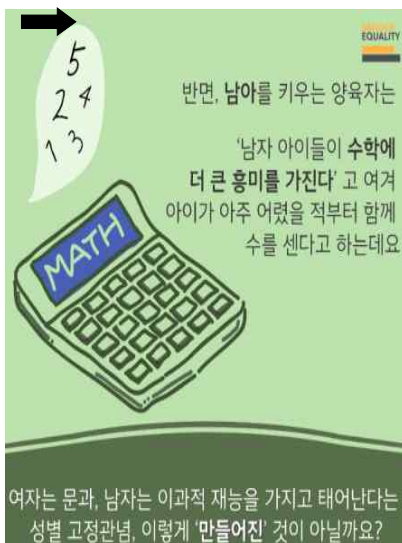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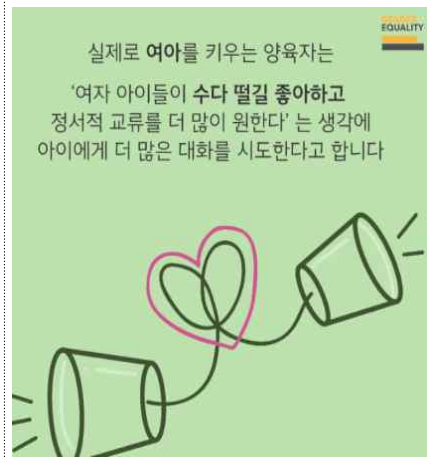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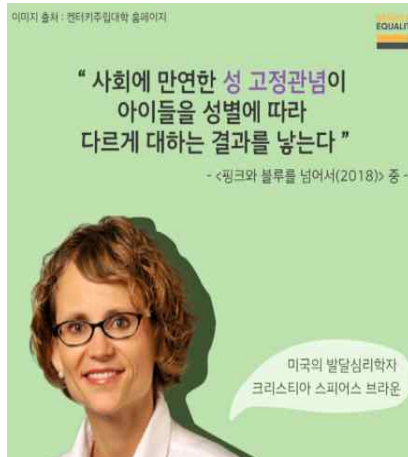
: 남아는 운동과 칼싸움, 여아는 소꿉놀이와 고무줄 등 성에 따라 놀이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장난감, 학용품 등을 사줄 때는 부모의 편견 없이 아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④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콘텐츠를 파악한다.

: 아이들이 즐겨보는 유튜브, TV, 인터넷, 책 등 다양한 매체에서 성 역할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장면은 없는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내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모니터링한다.

⑤ 집안일은 부모가 모두 참여한다.

: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은 가사와 육아 부분이 가장 크다. 아빠는 육아와 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집안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한다.



17. 마약류 · 흡연 · 음주 · 약물 오 · 남용 예방교육

1 마약류 · 약물 오 · 남용 예방

1)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종 불법 마약류

최근 본인이나 타인 명의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아서 흡입하고 또래들에게 웃돈을 받고 팔기도 한 10대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청소년 관련 마약류 관리에 대한 문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신종 불법 마약류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마약류란?

일반적으로 느낌, 생각 또는 행태에 변화를 줄 목적으로 섭취하여 정신에 영향을 주는 향정신성물질 (psychoactive substance)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생산, 판매, 사용이 금지된 불법약물을 지칭하고, 법률적으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총칭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따른 피해

-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위험한 사용, 내성 및 금단증상
- 신경조직망 손상으로 정상적인 생활 불가
- 기억력 감퇴, 집중력·판단력 장애 발생
- 뇌·간·심장 등 신체 각 기관 손상 가능
- 환각상태에서 범죄 유발

약물(필로폰)을 사용하여 변한 얼굴

미국 버지니아주 타즈웰군에 거주 40대 여성으로 2명의 자녀를 키우는 평범한 주부였으나 1998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말을 믿고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이래 불과 4년 만에 갈색머리는 하얗게 세어 버렸고 얼굴은 70대 노인처럼 쭈글쭈글해졌다.



필로폰 투약후



건강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후원방법 : 자동이체(CMS, 지로), 온라인송금
예 금 주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계좌번호 : 기업은행 327-001666-04-029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Korean Association Against Drug Abuse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48길 10 www.drugfree.or.kr
Tel. 02-2677-2245 Fax. 02-2677-2247 중독재활센터 02-2679-0437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흡입제는 뇌의 화학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뇌와 중추신경계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 대마초는 해마에 손상을 주어 기억손상이 올 수 있다. 또한 대뇌 부종, 뇌출혈, 편집증과 환각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은 뇌의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발작이 올 수 있다.



흡입제 사용자는 코와 입주위가 자주 헐고 후각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청각과 관련하여 뇌에 정보를 보내는 세포를 파괴시켜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흡연은 이를 누렇게 하고, 잇몸병을 일으킬 수 있다. 필로폰을 장기간 사용하면 이가 부식되고 빠진다.



흡입제는 정상적인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어 심장의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사망에 할 수도 있다. 필로폰은 다양한 심혈관문제를 야기하는데, 빠르고 불규칙한 심장박동, 열감이 높아지고, 과도한 투여를 한다면 심장발작이 올 수 있다. 스테로이드는 심장이나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액을 감소시키며, 그 결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



타르는 담배와 마리화나 사용자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남용자는 흡입할 때 유독가스가 폐의 산소를 대체하여 호흡이 곤란해져 사망할 수 있으며, 폐렴이나 기관지염 등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간의 종양이나 피가 찬 낭종을 일으킬 수 있다. 종양이나 낭종은 내부혈류를 일으켜서 간의 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



흡입제는 신장조직에 영향을 주어 면역계통질환에 원인을 제공한다. 엑스터시 사용자는 체온이 올라가고 진정되지 않으며 신부전증에 걸릴 수 있다.



흡입제를 사용하면 얼굴빛이 노랗고 피부에 윤기가 없어진다. 스테로이드 사용은 얼굴 전체에 피부병을 일으킬 수도 있다. 주사기 사용자는 혈관을 손상시키고 피부 농양이 온다.



흡입제는 뼈속의 골수를 손상시키고 성장호르몬의 역할을 방해하여 키가 정상적으로 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피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해 적혈구, 백혈구의 새로운 세포 생성에 결핍현상이 생겨, 재생불량성 빈혈이나 백혈병 등이 생길 수 있다. 필로폰 사용은 골다공증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2)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및 약물남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는 경우 전화/면접상담, 편지/PC상담 등이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상담소의 전국 상담 대표전화는 1899-0893입니다.

* 상담, 재활문의 바로가기 ☎ <http://www.drugfree.or.kr/counsel/index.html?contentsNum=4>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교사(校舎)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는 전체를 금연 시설로 지정**하여야 하고, 동 규칙에 의한 **금연 구역 표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직원**은 물론이고 **공휴일 학교시설 이용자, 학교 방문객 및 학부모 등 모두에게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전자담배의 위험성

- 쉐련형 전자담배(가열 담배): 담뱃잎을 태우는 것이 아닌 가열하여 피우는 원리 ex) 릴, 아이코스
- 액상형 전자담배: 액상을 기화시켜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담배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의심되는 “중증 폐손상 사례” 및 “사망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19.10.15. 기준)

중증 폐 질환 사례 **1,479건** 사망사례 **33건**

* 국내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 의심사례 접수 1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 중

지금까지 확인된 중증 폐손상 사례의 공통된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흡기 이상 증상

- 기침
- 호흡곤란
- 가슴통증

소화기 이상 증상

- 메스꺼움
- 구토
- 설사

기타 증상

- 피로감
- 발열
- 체중감소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의 대다수가 **대마 성분(THC)* 및 니코틴 함유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니코틴만 포함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마 성분 (THC) 니코틴

* THC(tetrahydrocannabinol): 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현재, 미국 정부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사용 자제 권고

☹ 전자담배에 대한 오해

오해 1위. 전자담배는 금연 치료제다?

- 전자담배는 1회 이용 시 정해진 니코틴 흡연량이 없어 니코틴 흡수량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를 이중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니코틴이 과다 흡수되어 오히려 니코틴 중독을 악화시킬 수 있다.

오해 2위. 전자담배는 안전한 담배다?

- 전자담배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포름알데히드 외에도 다양한 1급 발암물질과 독성 화학물질이 검출
- 전자담배의 연기도 유해 성분이 다수 검출되었기 때문에 사용자뿐만 아니라 주변인의 건강에도 잠재적인 위험이 됨.
- 제도화되지 않은 액상 제조 과정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의 경우처럼 액체를 기화해서 흡입하는 과정에서 어떤 유해 성분에 노출될지 모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초 담배보다 유해할 수 있음.

오해 3위. 전자담배(니코틴 함유)는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된다?

-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서 규정된 담배는 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할 경우 과태료 부과
- 전자식 흡연 욕구저해제(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액상)은 아직 담배로 분류하지 않음

2) 흡연예방 및 금연을 위한 부모님의 역할

- ①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 ②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 ③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흡연 시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 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 먼지 등의 표면에 부착한 뒤 몇 시간~몇 달 장기간 재배출(3차 간접흡연) 됩니다.

3

음주 예방

■ 건강한 음주 습관 안내



■ 음주와 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판단 능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져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아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